마음의 뚱보들의 체질적인 오해

(역대상 19:1-19)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4.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뚱보들의 체질적인 오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뚱보들의 체질적인 오해'
'전쟁'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다이어트는 살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탄수화물과의 전쟁, 지방과의 전쟁, 설탕이나 소금과의 전쟁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살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요주의 항목인데 식품 산업계에서는 설탕과 지방과 소금을 나침반의 세 점으로 얘기합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잘 팔리는 식품을 만들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설탕 지방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일수록 먹고 나면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얘기는 빈번히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해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 전쟁과 오해가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살을 왜 다이어트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몸살과의 전쟁만 걱정하고 마음의 살을 내버려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고 보편적

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몸에 살이 붙는 것이 안 좋지만 마음에 붙은 살에 비하면 그 위험성이 비교도 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살을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오해의 체질이 생겨서 무조건 오해하게 됩니다.
전쟁과 오해의 연관성에서 예를 들자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진주만에 미군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하면 태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해군의 발을 묶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원자폭탄 두 개를 맞고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파죽지세로 공격을 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베리아 겨울바람에 자연 도태되었는데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수나라가 망한 이유도 고구려의 침공이었습니다. 오해가 체질이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불행으로 점철된 내용의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불행하십니까? 십중팔구 아니 십중십 오해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십중십은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는 왜 생겼고 오해가 체질이 된 이유가 마음의 살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마음에 살이 찌는 이유는 마음이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고 살이 찌는데 마음을 채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아까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그 마음의 공백이 이삭으로 채워지질 않고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짐승들에 찢겨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데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마음에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돈이 마음에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 것을 좋아해서 붙은 마음의 살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체질이 되고 오해가 체질이 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하고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하고 수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 맛보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전체 맥락이 다윗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갑처럼 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한 전제조건이 다윗 자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전쟁은 전리품으로 병거와 기병의 말들을 획득했을 때 말의 발 힘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병거와 기병들은 그 당시에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가장 갖고 싶어 하고 가질 만한 것들과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방위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병거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내가 이 병거를 가지게 되면 망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내 몸에 붙은 살과 왜 전쟁을 해야 합니까?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하면 방어를 해야 하는데 내가 내 살과 전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과 전쟁을 합니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다윗의 과제였고 전쟁이었습니다.

본장에서부터 20장 3절까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러한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전쟁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승리를 은혜로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루어진 복음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구약성경 특히 역대기는 이루어질 복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이 바로 오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오해가 체질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에 붙은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어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방백들이 새로 왕이 된 하눈에게 이제까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에돔 등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위세를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고합니다. '이 조문객들은 좋은 뜻으로 조문을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호의로 보냈습니다. 나하스 왕이 살았을 때에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호의에 다윗은 호의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암몬의 방백들은 이것을 적의로 오해해서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사절단이 전신을 통으로 입었던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으니 초미니스커트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속옷이 따로 없던 시절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암몬의 모욕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말처럼 암몬이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자기네들을 밉게 볼 것을 생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

람나라에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거와 기병을 고용합니다.
앞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말들의 발 힘줄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은 오해해서 스스로 전쟁을 할 당위성을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었을 것을 오해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 병거와 기병을 사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요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전부 악의로 오해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형편은 호의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지독하게 안 벌립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안 벌리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시며, 백합화를 입히시고 새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호의를 베풀어서 안 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을 악하게 보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호의를 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이고, 병이 걸리는 것이 어떻게 호의이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고 은혜냐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좋아해서 마음에 살이 찌면 공간이 좁아지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우리가 좋아해서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서 좋아하던 것들을 마음에서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칠전팔기” 등의 말입니다. 한 번 세상 일이 안 되면 그 일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칠전팔기로 달려듭니다. 우리가 칠전팔기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기 위한 것뿐입니다. 안 되면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알아듣질 못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실패가 많고 병듦이 많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갖게 하시려면 세상 것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스스로 행합니다. 모든 왕들이 좋아하는 병거와 기병을 갖고 싶어 하고 좋아합니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주어졌지만 깜짝 놀라면서 이것들을 가졌다고 마음이 뿌듯해지면 하나님을 잃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합니다. 모든 왕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게 된 상황을 전쟁의 대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말들을 가지면 하나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을 깡그리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은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오해한 것인데 십자가 복음이 오해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갖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깡그리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못 죽고 안 죽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호의를 베푸시는 방법은 그가 마음으로 좋아해서 살이 된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 병에 걸리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병 걸리게 하신 것을 호의인 줄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함을 자랑으로 삼고 좋아해서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 건강함을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강이 상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으면 갖고 싶고, 갖고 싶은 만큼 벌면 이제 죽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해악이야 말로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에 돈을 주시지 않는데, 이 호의를 오해하고 금식기도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기에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쓰는 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자니 평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이고 가리고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 염려스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음 뚱보들이 펼치는 향연이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호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 내가 돈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돈이 필요하다면 세상의 돈을 다 모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실 뿐입니다. 또는 아직도 마음의 살과의 전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주시느라 돈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난 뒤라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동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암에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자격으로 그 분들보다 건강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이상을 주신다면 그것은 호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살을

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병에 걸리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돈을 그렇게도 안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자녀들을 말썽부리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라는 살이 붙어서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 갖기에 유리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이 갖고 싶어 하면 얼른 깨닫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통째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병거의 말들과 기병을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주신다면 이제부터 이것들에 대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갖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성향과 싸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떠밀면서 어느 방향으로 떠밀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떠밀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떠밀어 버릴 때에 하나님을 갖게 되고 하나님만 가지면 광야에서도 사십년을 삽니다.
그런데 갖고 싶어 하는 세상 것들을 내 마음이 삼켜 버리면 마음의 살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조금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까지 내게 야박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살과의 전쟁은 세상 것을 마음이 좋아하고 손에 쥐게 되면 생깁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삶에 호의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악의로 생각합니다. 체질적 오해의 사람이 되면 불행으로 점철되어 멸망으로 귀결됩니다. 오해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에 살들의 끊임없는 다이어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지속적인 마음의 살과의 전쟁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당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